

위험관리의 획기적 개선



李 大 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우 리들의 생활주변에서 각종 재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현상은 온갖 재해가 우리들의 일상 생활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며 이를 위해 인류는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입니다.

방재와 보험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비유되는 것도, 기실 따지고 보면 재난을 예방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은 그것이 인위적이든 자연 현상에 의한 것이든 간에 철저하게 파악·분석되어야 하며 또 해당 위험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거시 우리들은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며 어떻게 위험관리를 잘 해나가야 개인과 나라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지회 협회에서는 매년 20,000여건의 특수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기타 수백건의 대형시설물 내지 공장등에 대한 위험조사를 통해 각종 위험요소를 발견해내는 한편 이들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세밀한 분석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위험조사 자료는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에 제공되어 우선 부분적이거나 기업경영과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적지않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도록 중요한 위험조사 기능이 아직은 제한된 인력과

업무영역 탓으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협회로서는 현재 건설중인 방재시험소의 준공을 계기로 현존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더욱 폭넓게 분석해내는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위험이 발견된 이후에는 1차로 이 위험을 정감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위험을 보유하거나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 전가시켜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협회로서는 광범위한 위험관리의 한 분야인 화재, 폭발의 위험조사부문에서 우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함으로써 선진 방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라는 면에서 뿐 아니라 국가안보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국가방재 목표달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 우리들의 생활주변에서 모든 재해를 말끔히 없애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위험관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적의 간첩등에 의한 불의의 방화 또는 기타 폭발물폭파로 인한 재해를 격감 시킴으로써 국가에 공헌하는 작업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특수건물의 소유주되시는 여러분은 물론 관계당국과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